



2013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총평

드디어 2013 수능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6월 모평이 치러졌다. 많은 긴장감에 모평을 치렀을 것인데 모평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삼는 기회로 삼도록 하자.

I. 총평

6월 7일 치러진 평가원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문제로 인해 높아진 난이도였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출제되었다. 초반부의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다가 중후반 문제부터 막히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고루 분포되지 않았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번 6월 모평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쉬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물수능에 따른 각 대학 논술고사의 본고사화를 막으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II. 어려운 문항 및 신유형

문항	난이도	신유형	문항 분석
15번	상	0	양금의 생성 여부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 수능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 유형이었다. 이 문항의 경우 주어진 자료 형태가 낯설어서 학생들이 당황하였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접근하였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17번	상	0	X축이 개수나 압력이 아닌 질량으로 주어져서 학생들이 헷갈렸을 것이다. 또한 주어진 물질의 종류도 다르고 온도도 달라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화학II를 공부한 학생이었던면 조금은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고난도의 신유형 문항이었다.
19번	상		수능에서 자주 다루는 기체 파트 문항이다. 기체 파트는 나날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다. 낯설지 않은 형태이긴 하지만 2개의 피스톤과 고정장치에 유의하지 않고 풀었거나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내지 못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20번	상	0	산과 염기 2개가 동시에 반응하는 것을 묻고 있다. 이는 하나의 염기와 2개의 산이 반응하는 2011학년도 수능 19번과 유사하다. 11학년도 수능의 경우 물질을 정확히 알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물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서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이 평소에 알려준 대로 반응식을 작성해서 풀었다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III. 함정형 문제

문항	난이도	문항 분석
18번	중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보기 α 을 함정형 보기로 볼 수 있다. α 에서 묻고 있는 과정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환원이 되었는지 묻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보기 α 의 함정에 빠졌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IV. 오답률 BEST 10

문항 번호	19번	20번	17번	12번	8번	11번	14번	18번	2번	1번
정답률	38%	39%	51%	56%	57%	61%	64%	67%	67%	70%

V. EBS와의 연계성

이번에 치러진 6월 모평 역시 EBS와의 연계성은 높지 않았다. EBS와 연계된 문항보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기출이 변형된 문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신유형 문항이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EBS와의 연계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EBS 70% 연계는 과탐 영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료와 개념은 기출로 누적되었기 때문에 EBS 역시 기출을 변형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자. EBS에서 발표한 70% 연계의 진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EBS 70% 연계의 진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EBS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EBS 70% 반영이라는 발표를 믿고 EBS만을 맹목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무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만도 없는 EBS 70% 연계에 대한 진실과 그 대책을 제시한다.

I. EBS 연계, 과연 70% 반영이 진실일까?

1) 70% 반영? 표면적인 숫자일 뿐이다.

20문항 중 14문항, 70% 연계! 이는 수험생이 혹할만한 굉장히 높은 숫자이다. 그러나 과연 70% 반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표면적인 숫자일 뿐이며, 실제 연계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5~10% 정도였으며 그조차도 기본개념으로 풀 수 있는 쉬운 문항들이었다.

2) 언어/수리/외국어에 비해 과탐은 연계율이 낮다.

특히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타 영역에 비해 EBS 연계율이 낮다. 과학탐구의 경우 다룰 수 있는 개념 및 자료가 대부분 지금까지 기출에서 모두 출제되었다. 따라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개념 역시 지금까지의 기출 자료와 개념을 변형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출과의 연계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 EBS 역시 기출의 변형이며, EBS만의 고유 연계가 아니다.

아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듯이 EBS 역시 대부분 기출의 변형이며, EBS에서 연계되었다고 언급한 자료 역시 EBS 뿐 아니라 타 교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개념과 자료들이다. 수능은 80~90%가 기출의 변형이며 나머지 10% 정도가 신유형임을 기억하자. 10%의 신유형은 꼼꼼한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의 연계율이 낮다.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의 경우 EBS 연계율이 현저하게 낮다. 이는 고난도 문항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문항이고 대부분이 신유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과 EBS의 연계율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II. EBS가 발표한 2012 수능과의 연계 내역의 실제 - 과연 EBS만의 연계인 것인가?

1) 2012 수능 화학I - EBS 교재 연계 내역(EBS 발표)

연계 유형	개념 및 원리	자료 및 지문	문항 변형	계
문항 수	4	6	4	14
비율(%)	20	30	20	70

문항 번호	연계 유형	문항 번호	연계 유형
1	개념 및 원리	11	자료 및 지문
2	개념 및 원리	12	자료 및 지문
3	자료 및 지문	13	문항 변형
4	자료 및 지문	14	자료 및 지문



5	개념 및 원리	15	자료 및 지문
6	문항 변형	16	-
7	문항 변형	17	-
8	-	18	-
9	개념 및 원리	19	문항 변형
10	-	20	-

2) EBS가 발표한 70% 연계, 과연 믿음만 한 것인가?

EBS가 발표한 70% 연계, 과연 믿음만 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① 2012학년도 대수능 화학I 문제 2번 - EBS 수.특 p.111 개념 연계(EBS 발표)

2. 다음은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A~C로 분류한 것이다.

```

    graph TD
      Root[철의 부식 방지] --> A[A: 공기나 수분 차단]
      Root --> B[B: 합금]
      Root --> C[C: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 이용]
    
```

A~C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철 구조물에 페인트를 칠한다.
- ② A - 철 샵에 기름칠을 하여 보관한다.
- ③ B - 철에 크롬과 니켈 등을 섞어 스테인리스강을 만든다.
- ④ B - 철 수도꼭지를 크롬으로 도금한다.
- ⑤ C - 철로 된 배의 바닥 바깥에 아연을 부착한다.

기출 연계 -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화학I 8번

8. 그림은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방법 A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 ① 철 캔에 주석을 입힌다.
- ② 철 대문에 페인트를 칠한다.
- ③ 철제 공구에 기름을 바른다.
- ④ 수도꼭지에 크롬을 도금한다.
- ⑤ 철로 된 기름 탱크에 마그네슘을 연결한다.

- 2012학년도 화학I 2번은 EBS에서 수능 특강의 개념이 연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EBS에서만 다루는 개념이 아니었으며, 위에서 제시된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화학I



8번에서 제시된 자료를 EBS에서 동일하게 제시한 것이었다. 즉, EBS 역시 기출에서 다루는 개념 및 자료를 변형하거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012학년도 대수능 화학I 문제 3번 - EBS 수.특 p.104 문제6번 자료 연계(EBS 발표)

3. 다음은 산화철(Fe_2O_3)을 포함하는 철광석을 철로 제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부이다.

$\text{코크스(C)} + \text{O}_2 \rightarrow \text{㉠} + \text{CO}_2$
 $\text{철광석} \xrightarrow{\text{㉠}} \text{Fe} + \text{CO}_2$
 $\text{CaCO}_3 \xrightarrow{\text{가열}} \text{㉡} + \text{CaO}$
 $\text{㉡} + \text{CaO} \rightarrow \text{CaSiO}_3$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에서 생성된다.
 ㄴ. ㉠은 철광석에 포함된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킨다.
 ㄷ. ㉡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기출 연계 - 2010학년도 대수능 화학I 12번

12. 그림은 철의 제련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유독성 기체이다.
 ② B는 온실 기체이다.
 ③ C는 슬래그의 생성에 관여한다.
 ④ (가)에서 철광석의 산화철은 환원된다.
 ⑤ (나)에서 Ca은 산화된다.

- EBS 발표에 따르면 2012 대수능 문제3번이 EBS 수능특강의 문제 자료와 연계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EBS와의 연계인 것인가? 연계되었다고 발표한 EBS의 자료가 위에서 제시된 2010 대수능 12번의 자료와 동일하다. EBS가 아닌 기출 문제가 더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2012학년도 대수능 화학I 문제 4번 - EBS 수.완 p.67 문제2번 자료 연계(EBS 발표)

4.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분이다. A~E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주기 \ 족	1	2	3 ~ 12	13	14	15	16	17	18
2								A	
3	B							C	
4	D							E	

원소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B는 D보다 전자를 쉽게 잃는다.
- ② B는 공기 중에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 ③ A₂는 E₂보다 끓는점이 높다.
- ④ E₂는 C₂보다 수소와의 반응성이 크다.
- ⑤ A~E 중 금속 원소는 3가지다.

기출 연계 - 2007학년도 9월 평가원 화학I 5번

5.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 A~F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F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3점]

주기 \ 족	1	2	3-12	13	14	15	16	17	18
1									A
2	B						C	D	
3	E							F	

- ① E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
- ② A는 심해 잠수부용 산소 탱크에 이용된다.
- ③ EF 수용액에 D₂를 넣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 ④ BF와 EF 수용액은 불꽃 반응으로 구별할 수 있다.
- ⑤ C₂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극에서 얻을 수 있다.

-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12학년도 대수능 4번 문제는 EBS에서 발표한 수능완성의 문항보다 2007학년도에 기출된 평가원 문항과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원소도 기출 문항과 더 유사하다. 위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이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④ 2012학년도 대수능 화학I 문제 5번 - EBS 수.완 p.58 개념 연계(EBS 발표)

5. 다음은 광화학 스모그의 생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의 일부이다.

$$\text{N}_2 + \text{O}_2 \rightarrow 2 \text{㉠}$$

$$2\text{NO} + \text{O}_2 \rightarrow 2\text{NO}_2$$

$$\text{NO}_2 \xrightarrow{\text{자외선}} \text{㉡} + \text{O}$$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 ㉡은 화학식이 같다.

㉡. NO₂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이다.

㉢. 광화학 스모그는 흐린 날보다 햇빛이 강한 날에 발생하기 쉽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백인덕 선생님 2012 섬세한 개념완성 교재 p.118

나. 대기 오염의 피해

(1) 광화학 스모그(LA형 스모그) : 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오존과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스모그

① $\text{N}_2(\text{g}) + \text{O}_2(\text{g}) \xrightarrow[\text{엔진 속}]{\text{자동차}} 2\text{NO}(\text{g})$

② $2\text{NO}(\text{g}) + \text{O}_2(\text{g}) \longrightarrow 2\text{NO}_2(\text{g})$
(자동차) (공기 중)

③ $\text{NO}_2(\text{g}) \xrightarrow{\text{햇빛}} \text{NO}(\text{g}) + \text{O}(\text{g})$

④ $\text{O}(\text{g}) + \text{O}_2(\text{g}) \longrightarrow \text{O}_3(\text{g})$

$\text{O}_3 + \text{탄화수소} \longrightarrow \text{옥시던트}$
연료의 불완전 연소나
타이어 닳을때 발생

- EBS에서 개념이 연계되었다고 발표한 2012학년도 대수능 5번 문제이다. 그러나 위 자료를 살펴보면 이는 EBS 교재에서만 다루는 개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백인덕 선생님의 개념서에서도 충분히 다루주고 있는 개념이며 선생님의 개념서로 학습하거나 개념강의를 들은 수험생이라면 EBS를 접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몇몇 자료들로 알 수 있듯이 EBS 70% 연계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 연계되었다고 발표한 대부분의 문항이 기출에서 다른 개념과 자료였으며, EBS 뿐 아니라 백인덕 선생님의 교재 및 강의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였다. EBS 연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EBS만을 믿고 안일하게 수능을 대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Ⅲ. EBS 연계 대책 - 개념, 기출 문항, 백인덕 선생님이 답이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다. 개념을 통한 이해와 응용이 고난도 문항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EBS 연계 문항도 쉽게 풀 수 있으므로 막연하게 EBS 교재를 암기하려 하거나 EBS 강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차근차근 꼼꼼하게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자.

• 추천!!! [화학 I, II] **섬세한 개념완성반** / • [화학 I, II] **스피드 개념완성반**

2) EBS 또한 기출 변형이 다수,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라.

앞서 살펴 보았듯이 EBS 교재 역시 기출을 변형한 문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기출되었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항도 있다. 따라서 EBS보다는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풀이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능의 출제기관은 평가원임을 명심하자. 또한 수능은 지금까지의 기출 문항을 80~90% 변형하여 출제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6개년 6월, 9월 모평 및 수능 문제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풀어보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자.

• 추천!!! [화학 I, II] **배.고.파 특강**

3)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EBS 우수 문항으로 시간을 단축해라.

EBS를 안 풀어보려니 불안한가? 개념과 기출문항까지 모두 학습하였다면 문제 적용을 위해 기출이 변형된 다양한 문항을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단순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적은 수의 문제를 풀더라도 양질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보기 하나까지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 교재 중 눈여겨보아야 할 문항을 선별하여 제공하니 이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자.

4) 기출 및 EBS 최우수 문항은 썸머 특강에서 변형 문항으로 해결해라.

기출문제에서 나아가 고난도 문항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백인덕 선생님의 썸머 특강으로 변형 문항을 대비해라. 최근 기출 핵심 유형 및 EBS 최우수 문항을 선별하여 변형한 썸머 특강으로 3점짜리 문제를 정복하고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자. 개념-기출-기출변형 문항으로 만점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추천!!! [화학 I, II] **Summer 특강**

Ⅳ. 6월 모평 후속 대책

- ① 백인덕 선생님 해설강의(이투스)
- ② 체크리스트 다운 받아 활용(www.baekbrothers.com)
- ③ 부족한 개념을 개념강의 및 개념서를 통해 복습
- ④ 꼼꼼하게 반복하여 기출 풀이